

Park 21 인터뷰/Interview [한국 옮김 & English Translation ]  
\*오디오에서 글로 옮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의미를 잘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Important point of note: The Korean transcription is not exact; I have clarified some of the expressions and omitted repetitive parts. The essential message remains the same.

Person Code: Park 21

Interviewer: I

I: 첫번째 질문은요, 6.25 전쟁 때 몇살이었고 어디서 사셨어요?

I: How old were you during 6.25 and where did you live?

Park 21: 6.25 때 11 살 초등학교 4 학년때 성동교 신당동에서 살았어요.

Park 21: I was 11, a fourth grader. I lived in Sungdonggyo in Sindangdong.

I: 그 당시에 제일 걱정되는게 무엇이었나요?

I: What was your biggest concern?

Park 21: 그 때 자다가 6.25 가 일어났거든요. 그랬을 때 소나기가 왔어요. 처음에 북한에서 쳐들어 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피해 되잖아요. 신당동 그 쪽이 불 바다가 됐어요.

우리가 도망치니까 인민군들이 총 쏘서 우리가 이불 속에 숨어 있었죠. 그걸 쓰고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큰아버지가 포목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 같으면 실크같은 걸 도매했으니까 불 타다 남은걸로 피난을 다니면서 좁쌀, 보리쌀을 받으러 엄마랑 피난을 다니셨는데. 엄마가 4 남매였는데 고모는 어디 간 줄 모르고. 뿔뿔이 헤어진거죠. 피난 나가고 돌아왔을 때 한명도 안 다치고 돌아왔어. 6.25 때에. 총알이고, 총격이고, 뭐 누런것 만 있으면 아군들이 쏘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고, 애기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나는 쌀 매고 다녔는데. 가다가다 쉬면은 깜땡이들이 여자만 보면 강탈해. 또 우리 작은 외할아버지네가 있었거든요. 노인네들 자식 굶길수 없으니까 [엄마가] 떨어져서 어린애 이고 혼자 가요. 형사 집에 숨었는데 동네 빨갱이가 무서워요. 전기 불을 맘대로 못 피고 담요로 가려서 불을 켜요. 아군들이 오면 누런 것만 보면 싸요. 하여튼 그런 사이에서 인민군, 중공군 다 봤는데 그 사람들은 얌전해요. 한 나라의 군인이니까. 근데 깜땡이들, 미군들은 왔을때. 남자들이 깡통을 달아나. 그럼 여자들이 다 숨어요. 그 때 강탈해서 임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총 들어내가 강탈하니까. 엄마는 그래서 숲으로 산에서 먹칠하고. 정말 비극이야. 남자가 도망가라고 신호 보내고.

그래가지고 3.8 선 맥혀서 다 이북으로 넘어가고 나도 학교 다니다가.. 여자들은 미군들한테 강탈당하고. 내가 그 꼴을 정말 못 봐.

아버지는 의용군에 잡혀 가서 소식이 없고. 엄마는 삼남매 데리고 다녔어. 외할아버지, 삼촌, 외할아버지 동생 4 식구 모시고 피난했지.

Park 21: 6.25 started while I was sleeping. I remember it was drizzling then. When the North attacked, we had to hide as Shindangdong became a sea of fire as inmin soldiers shot ruthlessly.

When we ran away, my family hid beneath the blanket to avoid the bullets. My uncle worked as a silk clothing merchant. With the remaining items that he salvaged from the fire, he went with my mom to find barley to eat. My mom had 3 other siblings but her sister went missing. We were all scattered. After taking a refuge, when we returned, everyone else was unharmed. That was amazing. During 6.25, with plane raids, guns, and even our armies shooting anyone with yellow skin, other people have died or lost their loved ones. Sometimes when we rested on our wandering, I saw Blacks raping women. My mom, piggybacking my little sibling, went to my grandpa's to feed him. She hid at the police's house, and in case Reds from the region, who were the scary ones, attacked, she hid the electrical light under the blanket. We saw inmin soldiers and Chinese, but they were nice. But it was the black people and the US soldiers who raped women. I knew a lot of pregnant women because of that. They raped while threatening with their guns. My mom, to avoid rape, went to the mountain and blackened her face with soot.

When inmin soldiers retreated North I went back to school. Some women were raped by US soldiers. I could not bear to see such things. My dad was forced to go to volunteer corps but there was no news from him. My mom went around looking for refuge with her three sibling.

I: 그 당시에 6.25 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I: How did you understand 6.25 then?

Park 21: 누가 시작해요? 이북에서 시작했죠. 그 시적에 이승만 대통령이

I: 그럼 주민들은 서로 다뤘나요, 아님 단결했나요?

I: Then did residents fight or worked together?

Park 21: 단결했죠. 피난에서 수십명이 자요.

Park 21: They worked together. We housed other refugees.

I: 그럼 주민들은 단결했지만 동네 빨갱이들이 해를 끼쳤나요?

I: Then, the residents worked together but Reds from the area caused most harm?

Park 21: 빨갱이들이 무서워요. 피난민들끼리는 좋았어요.

Park 21: Reds were the scary ones. Refugees depended on one another.